

노로바이러스

2월



01 발생 개요

- '23년 2월 여행 후 귀가한 친목회 회원에서 설사, 복통,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회원이 보건소로 신고
- 2박 3일동안 다수의 음식점에서 공통섭취가 있음을 파악하고,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원인·역학조사 실시
- 환자 / 섭취자 수(발생률) : 9명 / 17명(52.9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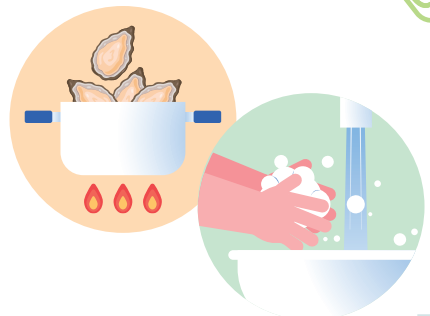
02 발생 원인

- (추정병원체) 인체검체(2건, 환자·조리종사자) 및 환경검체(4건, 칼·육류용칼·도마·행주)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원인병원체는 노로바이러스로 판단
- (추정감염원)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리종사자로 인해 주방도구 및 음식에 바이러스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
- 즉, 노로바이러스 감염 조리종사자 또는 주방 내 식기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



03 개선 방안

- 조리를 담당하는 조리사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생굴, 지하수 섭취에 더욱 주의
 - 굴은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(중심온도 85℃에서 1분)
 - 지하수는 끓여서 섭취
- 설사, 발열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,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조리 배제
- 주기적으로 비누를 사용하여 손씻기를 실시해 노로바이러스 예방



시설별 주요 원인균

